



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7,500억 달러의 예산을 6,000억 달러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의 두 배 이상이며, 미국이 비교할 국가가 없는 세계 최강대국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들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의 엄청난 국방 예산과, 오바마 정부에서의 국방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은 미국의 지출에서 항상 거대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펜타곤에서 근무했던 로렌스 코브씨는, 12년 동안 지속해서 국방 예산을 감축한다면, 12년간 총 1조 달러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인들은 예산을 감축하기보다는, 더 쓰고만 싶어하는 것 같다.

공화당이 국방예산을 더 쓰는 데 집중한다면, 민주당은 최근 그린 뉴딜 정책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 사업을 벌이고 고용을 늘려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정부 주도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는 방안)을 추진하자면서 장기적으로 50조~90조 달러를 예산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한 가정이 1년에 65,000 달러씩 감당해야 책정 가능한 예산이며, 전체 미국 경제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예산 낭비성 정책만을 남발하기 보다, 미국의 부채를 고려한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pentagons-budget-is-crazy-by-trumps-own-admission/>